

'광주의 미학'을 만끽하세요

광주일보·시립미술관 '인문학강좌Ⅱ' 17일 시작

김우창 교수 첫 강좌... 강사 10명 연중 '명품강의'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이 연중 공동 주최하는 '인문학강좌Ⅱ'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 감성을 해소해주는 '명품 문화 강좌'다.

지난해 열렸던 '인문학강좌Ⅰ'은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V.달리아 교수, 김선정 2005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 등 국내외 유명 강사들이 다양한 예술 이야기를 들려줬다. 매회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강사들과 격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현대미술을 폭넓게 이해하는 장을 만들었다.

올해는 더욱 탄탄해진 강사진과 풍성한 내용이 준비됐다. 이번 강좌는 오는 17일~12월15일, 매달 셋째주 목요일(9월만 넷째주 목요일·오후 3시~5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옛 전남도지사 관사) 세미나실에서 '광주미학을 창조하자'를 주제로 열린다.

'인문학강좌Ⅰ'이 인문학적 관점으로 현대 미술을 조망했다면 이번 '인문학강좌Ⅱ'는 광주의 건축, 춤, 무용, 전통놀이, 회화, 풍수, 음식, 차 등 다양한 분야 속에 담긴 '광주의 미학'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오는 17일 이화여대 김우창 교수가 '문화의 전통과 삶의 일체성'을 주제로 '광주 미학 찾기'에 화두를 던진다. 호남의 정서와 감성을 살펴보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호남 문화가 싹튼는지를 이해하는 강의다.

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효승상 공동감독과 조용현 전 원광대 교수가 각각 '광주의 전통 건축미학'(4월14일)과 '호남의 명문가와 풍수'(6월16일)를 주제로 호남의 '땅의 미학'을 들려준다. 호남의 집터와 건축물에 담긴 남도민의 정서와 생활을 이해하고, 지형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강의다.

전남대 김광복 교수의 '소리의 미학'(5월19일), 서울대 이애주 교수의 '굿과 춤의 미학'(10월13일), 부산대 채희완 교수의 '대중놀이의 신명과 생성, 생명 미학'(11월17일)은 각각 소리와 춤, 놀이를 중심으로 남도 미학을 탐구한다.

호남 대표 화풍인 남종화와 유배지에서 현대 미술을 조망했다면 이번 '인문학강좌Ⅱ'는 광주의 건축, 춤, 무용, 전통놀이, 회화, 풍수, 음식, 차 등 다양한 분야 속에 담긴 '광주의 미학'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김우창 조용현



이애주 최완수

정선 이후 추사와 소치, 의재 허백련에 이르는 전통 수묵화의 정신과 아름다움, 신안, 진도, 완도 등지에서 꽃피운 다양한 유배 문화를 소개한다.

이 밖에 사찰 음식의 대가 대안스님의 '음식·통섭의 미학'(9월22일), 초의선사의 맥을 잇고 있는 백련사 주지 여연스님(차문화학회장)의 '차의 미학'(12월15일)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비밀'과 '발효'로 대표되는 호남 음식과 그윽한 차향을 통해 남도의 맛을 탐구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2-613-53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굴곡진 삶...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원화 첫 소설집 '길을 묻다' 출간

소설가 이원화(43)씨가 등단 5년 만에 첫 소설집 '길을 묻다'(문학의 펴냄)를 출간했다.

2006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등단작 '길을 묻다'를 비롯해 속명적으로 '보통'의 삶에서 이탈한, 이로 인해 상처와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불안한 생활상을 담은 일곱 편의 단편을 실었다.

소설은 지난한 여성들의 삶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진솔하고 명확하게 전한다.

이번 소설의 주인공은 40대 중년 여성들. 그것도 남편을 잃은, 남편의 부재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여성들이다. 또 죽은 남편에 대한 애뜻한 기억과 다른 남자와의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 사이에서 서성대는 여성, 남편이 살아있을지라도 외롭고 처욕적인 삶을 견디는 여성들이다.

하지만, 이씨가 그리는 여성의 삶은 근본

적으로 연약한 사람 타령이나 감정놀음에 빠져 있지 않다. 극히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인물들이다.

남편과 사별한 여인의 인간적 고뇌를 다룬 표제작 '길을 묻다'에서의 주인공은 사회 단에서 일하며, '늘 그런 것'의 '이경'과 '파문'의 '현금'은 대형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여성이다.

소설 속 등장인물을 대부분 직업전선의 중심에 둔 점은 고통스러운 생활에서도 삶의 의미를 살피고, 희망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작가는 이들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죽음이라는 화두에서 시작해 이와 연결된 현실적인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혼돈과 불안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의 삶을 주로 다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어릴 수 없이 처한 부조화의 삶으로 고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위로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출간기념회는 18일 오후 7시 광주 상무지구 CMB방송국 2층 문화홀에서 열린다. 문의 010-4137-446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죽과류 가야금 산조 심세함을 듣다

17일 성심온세 초청 빛고을국악전수관 300회 공연

매주 목요일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여온 빛고을국악전수관의 '목요상설공연'이 오는 17일로 300회를 맞는다.

전수관은 300회 무대에 가야금 연주자 성심온(전남대 국악학과 교수·사진)씨를 초청했다. 오후7시 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성 교수는 김죽과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들려준다. 성 교수는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김죽과류 가야금산조 이수자다.

조부 김창조와 한성기에게서 배운 가락에 죽과 김난초가 자신의 독자적인 가락을 얹어 완성한 김죽과류 가야금 산조는 여성 특유의 섬세한 농현이 특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다스름·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세산조시로 이어지는 전바탕을 들려준다.

서울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성교수는 빛고을무등가야금연주단 고문,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장고



반주는 양신승(전남도립국악단원)씨다. 무료 공연.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7일 피아노 듀엣 'Ah&Rang' 연주회

'피아노 듀엣과 떠나는 봄 나들이.' 피아노 듀오 'Ah&Rang' 연주회가 오는 17일 오후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화여대 선취배 사이로 지난 2002년부터 호흡을 맞춰온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 교수)씨와 현재 독일에서 활동중인 이랑씨가 지난 2009년 결성한 'Ah&Rang'은 지난해 '피아노로 듣는 동화이야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공연을 해왔다.

이번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요한 스토라우스의 '봄의 소리 작품번호 410', 드라마

'노 다 메 칸타빌레'에서 남녀 주인공이 연주해 화제가 된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노테벌트의 '9개의 변주곡', 미요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스카라무슈' 등이다.

김정아 이랑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 문화 가디언'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www.ctt.go.kr)은 올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현장에서 활동할 '아시아 문화 가디언'을 모집한다. '아시아 문화 가디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시민 봉사 조직이다.

이들은 아시아문화전당 아트팩스 프로젝트, 월드뮤직페스티벌 등에 봉사자로 참여한다. 또 전시·공연과 문화교류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시민이 만드는 홍보관' 사업에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게 된다. 마감은 오는 23일까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대표 문화 강좌로 자리잡은 '인문학강좌'가 올해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사진작가 배병우의 강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Since 1981 **i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이런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 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빔 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와인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상무점	한도사랑 영화사람	하남점
1관 라퐁겔 (전제) / 아이엠넴버포 (12세)	1관 라퐁겔 (전제) / 아이엠넴버포 (12세)	1관 라퐁겔 (전제) / 아이엠넴버포 (12세)
2관 월드인베이션 (12세)	2관 월드인베이션 (12세)	2관 월드인베이션 (12세)
3관 파이터 (15세)	3관 파이터 (15세)	3관 파이터 (15세)
4관 아이엠넴버포 (12세)	4관 킷롤러 (15세) / 랭고 (전제)	4관 킷롤러 (15세) / 랭고 (전제)
5관 조선명탐정 (12세) / 킷롤러 (15세)	5관 블랙스완 (18세)	5관 블랙스완 (18세)
6관 블랙스완 (18세) / 알파오메가 (전제)	6관 사랑이 무서워 (15세)	6관 사랑이 무서워 (15세)
7관 킷롤러 (15세)	7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7관 그대를사랑합니다 (15세)
8관 파이터 (15세)	8관 아이들 (15세)	8관 아이들 (15세)
9관 아이엠넴버포 (12세) / 랭고 (전제)	9관 조선명탐정 (12세) / 리멤버미 (15세)	9관 조선명탐정 (12세) / 리멤버미 (15세)
10관 월드인베이션 (12세)	10관 사랑이 무서워 (15세)	10관 사랑이 무서워 (15세)

상영연결 방법 - (1번 or 2번) - 0번
☎ 1588 - 7941

조조 영화하면 어떠세요? / 호남최대주최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 정상이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o.co.kr
세니서전대3D(4K)상영!!